

## 어머니의 심정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가방생산이 한창인 재봉작업장에 들리시여 여성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멜끈을 하나 만들어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정성을 담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평양가방공장은 종업원의 대다수가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이였다. 그들모두가 제 자식에게 메워줄 가방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재봉을 한번 해도, 장식을 하나 붙여도 정성을 다하도록 그리도 마음쓰시는것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일군에게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시며 이 나라 어머니들의 심정을 담아 가방생산을 잘 해나갈데 대한 믿음의 말씀을 하시였다.